

일본의 계란생산, 유통 현황과 전망

八 矢 彰

(全農 鶏卵課長)

본고는 지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郡山市)의 남동북 종합전시센터에서 개최된 제 13회 전일본양계산업전에서 개최된 강의내용이다.

본고가 일본의 채란업계를 이해하는데 충분하지는 못하나 사양산업화 되어가는 그들의 고민을 엿

볼 수 있으며 그 고민은 바로 우리의 고민으로 이미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기에 일본양계산업시찰좌담회와 함께 게재한다. 좌담회가 밝은 면을 주로 조명하였다면 본고에서는 그 밝은 면 뒷쪽의 그늘진 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1. 최근의 계란수급과 가격동향

가. 생산동향

1982년의 계란생산량은 2백5만9천M/T으로 전년 동기비 103%로 증가하여 사상 최고가 되었다. 이는 81년~82년 사이의 난가가 높았기 때문에 육추수가 대폭 증가한(80년 전년비 103.5%, 81년에는 전년비 104.2%, 82년에는 전년비 101.8%)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계란시장 입하량을 보면 12월말에 동경시장이 16만3천M/T으로 전년 대비 112.8%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오사카 시장은 전년 대비 103.9%로 되어있다.

나. 소비동향

소비동향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가정 소비의 1~11월까지의 추계가 10.02kg으로 전년 대비 102.3%가 신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81년의 공급량이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의 증가율이다. 연간 소비량은 76년에서 79년까지와 같

이 11kg선을 다소 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계란소비량은 11월말에 5만6천M/T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6%로 감소되었고 연간으로 보면 6만2천M/T 전후로 예견되며 78년 이후는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다. 수입동향

수입액은 국내가격의 혼미와 수출국에 따른 수급사정(생산조절과 내수대책 등) 등으로 1982년에는 대폭 감소하여 동결란은 1만1천M/T으로 전년 대비 80.9%, 동결난황은 7천M/T으로 전년 대비 74.3%, 동결난백은 1만5천M/T으로 전년 대비 95.8%로 되어있다.

라. 가격동향

1) 82년의 난가(젠노(全農)동경M싸이스)는 수급상황이 크게 나빠져 전년에 비해 대폭적으로 가격이 하락되었다. kg당년평균은 816원으로 전년 대비 79%였다. 금년 1월부터 수급의 균

형은 연말 재고체화에 의한 수급부진 등에 의하여 월평균 606원으로 1974년 이래 최하의 가격이었다.

이 결과 83년 1월의 표준거래가격은 약 600원/kg이고 계란기금의 보조단가도 사상최고인 174원/kg으로 올랐다.

2) 예상 이외의 하락세를 막기 위하여 생산자들은 노계도태, 강제환우 등에 의한 출하감소와 가공공장 쪽으로 출하하는 등에 의하여 1월 말부터 난가는 급속한 회복세를 보여 2월 말에는 825원으로 상승하였다.

2월의 월간평균은 732원으로 나타났다.

3) 그러나 금후의 난가 동향을 보면 1983년의 생산량을 210~213만M/T으로 예상할 때 산란계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적정수준까지 계획적으로 감산하지 않으면 3월 이후 상당한 난가 하락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전국농협이 예상한 연간 평균 720~750원 달성은 곤란하게 될 것이다.

2. 계란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정세

가. 계란의 수급동향

82년의 계란생산량은 205만 8천 9백51M/T이었다.

수년간 증가일로에 있으며 77년부터 5년간은 9.4%, 71년부터 11년간은 14.3%가 증가했다. 81년의 농업총생산 출하액은 일화 10조 7천 3억엔이었는데 이중에 축산물 산출액이 3조 165억엔으로 2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계란이 5천 4백 76억엔으로 축산 전체매출고의 18.2%이고, 그 중량은 71년의 27.1%, 76년의 21.4%와 비교해서 저하되고 있으나 값이 싼 단백질공급원으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82년 2월 1일 현재의 사양 호수는 15만 9천 호이고 77년에 대비하면 48.7%로 반수 이상이 감소되고 있다.

사육수수도 1억 2천 3백43만 마리로 동대비 102.2%로 되어 있다. 사육규모별로는 1만마리 이상의 1.7%농가가 마리수로는 62.7%를 점유하고 있다. 5개년만에 호수로는 1%, 마리수로는 9.8%증가하여 사육규모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한편 수요면에서는 63~65%를 점유하고 있는 가정용 소비가 71년경을 고비로 정체되기 시작해서 점차 줄어들었다.

국민 1인당 1년간 순식료품으로 공급되는 양은 71년에 14.9kg, 76년에 14.3kg, 81년에 14.7kg로 되어 있다.

표 1. 1982년과 1983년의 월별 난가

단위: 원,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82년	난가실적	293	288	290	263	251	241	246	249	288	301	280	270	270
	전년동월비	79	73	71	84	91	85	92	85	85	84	74	64	80
83년	난가예상	230~240	250~260	260~270	230~240	210~220	200~210	200~210	210~220	250~260	260~270	280~290	300~310	240~250
	전년동월비	78~82	87~90	90~93	87~91	84~88	83~87	81~85	84~88	87~90	86~90	100~104	111~115	89~93

(주) 난가: 동경M 사이스기준(kg)

※일본의 계란 규격

LL	70~76g	MS	52~58g
L	64~70g	S	46~52g
M	58~64g	SS	40~46g

표 2. 계란 생산량 추이

단위 : 톤, %

구분	1971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생산량	1,801,319	1,859,418	1,882,774	1,965,416	1,990,924	2,001,582	1,999,542	2,058,951
지수	100	103.2	104.5	109.1	110.5	111.1	111.0	114.3

[축산통계]

표 3. 산란계 수수와 규모별 사양호수

단위 : 호, 천수, %

구분		총 수	규모별 수			
			1~999	1,000~4,999	5,000~10,000	10,000수 이상
호	실체수	77年 326,300	308,600	12,000	3,200	2,500
		82年 159,000	144,200	8,700	3,300	2,800
수	구성비	77年 100	94.6	3.7	1.0	0.7
		82年 100	90.7	5.5	2.1	1.7
수수(천수)	실체수	77年 120,812	7,967	27,341	21,620	63,882
		82年 123,429	4,159	20,265	21,651	77,354
수수(천수)	구성비	77年 100	6.6	22.6	17.9	52.9
		82年 100	3.4	16.4	17.5	62.7

<주> 2월 1일 현재 [축산통계]

표 4. 국민 1인당 1년 공급량

단위 : kg, %

구분	71	76	77	78	79	80	81
계란공급량	14.9	14.3	14.5	14.9	14.7	14.7	14.7
지수	100	96.0	97.3	100.0	98.7	98.7	98.7

계란소비량면에서 도시 농촌의 격차나 소득 계층의 격차는 거의 없고 어디서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계란소비의 잠재성은 인구증가 정도에 따라서 신장도도 달라질 것이다.

업무용, 가공용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신장될 것으로 보이나 식생활의 개선다양화, 고급기호 등으로 크게 증가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과잉생산된 때가 있었기 때문에 74년 이후에는 생산조절의 강화를 계획했었다. 81년도부터는 관민일체가 되어 계획생산(계란수급안정 특

별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80년 10월 농정심의회 답신(수요와 생산의 전망)에 의하면 90년도 계란생산량은 2백22만 M/T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연간 약 1%의 신장인데, 수요에 알맞은 철저한 계획생산이 필요하다.

나. 산지(產地) 유통상황의 변화

계란의 생산지역은 전국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생산하기가 극히 어려운 양계산업이다. 근년에도 그 형태는 변함이 없다. 82년도의 생산량을 보면 일본에서도

표 5. 계란의 수요와 생산 전망

	78 년도	90년도	90/78년도
총 수요 량	204만톤	225	110.3%
국내 생산 량	198만톤	222	112.1
성계의 사양수수	124백만수	131	105.6
1인당 섭취량	14.9kg	15	100.7
자 급 율	97%	99	-

(注) 1. 총수요량에는 식용 이외에 사료용, 가공용, 종자용, 감모, 수출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수요 전망에 있어서는 민간 최종 소비 지출(실질)의 신장은 78~90년 간이 평균 4~5%로 추정할 수 있고, 인구는 후생성 인구문제연구소의 추계(90년도 1억 2천 6백 28만명)에 의한 것이다.

관동지방이 19.5%, 구주지방이 17.5%이고, 동해지방이 16.9%로 전체의 53.8%를 차지하고 있다.

71년 당시의 비율과 비교할 때 0.8% 감소하

고 있다. 생산량 상위권과 전국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71년의 43.7%에서 82년의 42.5%로 약간 감소하고 있다.

최근 11개년간 산지의 변천을 보면, 북단서남쪽 끝까지 대형산지를 중심으로 생산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농외자본의 진출에 의하여 새로 시작되는 업자들이 주를 이룬다. 사료판매업자들이 새로운 사료판매 작전으로 생산, 유통 및 판매망까지를 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시켜 새로운 루트를 개발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유통과정에서도 대형중이상자중심이던 것이 수퍼 등 판매망의 다양화로 소형비닐포장유통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유통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지와 소비지 간에 GP센타 설치가 진행되어 국가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전국에 확산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순조롭지만은 않다. 판매경쟁의 격화, 거래조건 등의 악화, 제조비의 상승에서 오는 경영압박 등 다시 연구할 단계가 온 것 같다.

표 6. 지역별 계란생산량

	생 산 량			구 성 비		
	1971	76	82	71	76	81
전국 계 (A)	1,801,319	1,859,418	2,058,951	100	100	100
북 해 도	71,970	85,071	90,787	4.0	4.6	4.4
동 북	146,798	186,294	227,516	8.2	10.0	11.1
관 동 · 동산	367,912	335,717	401,497	20.4	18.1	19.5
북 륙	85,348	111,681	118,764	4.7	6.0	5.8
동 해	349,032	331,497	347,170	19.4	17.8	16.9
근 기	180,114	157,353	155,155	10.0	8.5	7.6
중 국	182,410	187,772	199,306	10.1	10.1	9.7
사 국	151,640	130,535	140,555	8.4	7.0	6.8
구 주	266,095	316,058	359,697	14.8	17.0	17.5
오 끼 나 와	-	17,440	18,504	-	0.9	0.9
상위10현계 (B)	788,064	808,691	875,301			
(B)/(A)	43.7	43.5	42.7			
오끼나와 제외(B)/(A)	-	43.9	42.9			

또한 대도시 소비지중심으로 생산지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소매업계의 현황과 전망

가. 판매점의 변천과 전망

1955 년도에 탄생한 수퍼는 박리다매 방식을 무기로 급성장하였는데 65년 후반까지 이 업계는 선택과 통합을 거쳐 오늘의 거대한 기초를 쌓아 올린 것이다. 그리고 대형수퍼가 전국적으로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지방수퍼 역시 이에 뒤 질세라 착실한 발전을 하고 있다. 현재는 74년 이후 대점포법에 규제되어 있어 신규개점 속도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반면에 큰 업체의 계열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 점포의 충실, 정직, 활성화 등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현상은 대형수퍼들이 지방수퍼 조직망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종래의 대형수퍼의 증가속도로 본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점포의 확장이 전개되리라 믿는다.

나. 대량판매업소의 대두에 의한 앞으로의 전망

1) 구입동향의 변화 : 수퍼가 대형화되는 것을 규제하는 시대를 맞아 가맹점들은 불품구입면 등에서 스스로 경영전략상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수퍼업체가 살아남기 위한 작전으로서 는 다원화 구매방식 등을 이용하여 납품업자에 대하여 가격하락공세가 예견되고 있다.

2) 상품형태의 개혁 : 근본적으로 계란의 품질선택 방식과 포장란의 중량을 높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계란의 구분화의 일환으로 특수란의 다량 생산이 어렵고 특란이 1% 정도 나온다고하여 현 상유지를 하는 것이다. 계란의 보급율은 상품으

로의 회전율은 나쁘나, 물량유통 비용의 압축과 수단의 개선결과도 점점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 수량적인 판매정책상(아이템 강화) 앞으로 일층 선별관화할 욕구가 커질 것이다.

2) 대량판매점의 계란 GP센타 지배경향 : 대량판매점의 자사상품 특징을 붙여서 판매 촉진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관작업을 기도하는 업자도 없지 않으나 계란업계의 실패와 경험이 풍부한 업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 물량의 산지 직매화 경향 : 근본적으로 계란이라 함은 가격이 싸고 그 신선도 유지라는 과제를 가지고 소비자에 파고들어 구매력을 높이는 데, 자기점포의 이미지를 높여 생산자 직판을 꾀하고 있다. 납품업자도 판매전략의 수단으로 어필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판매점의 그날의 판매량은 아직도 문제가 많다.

5) 출하형태의 이모저모 : 현재의 식란 전유 통량의 50%가 포장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량은 과거 판매점의 진출과 같이 매년 확대하여 왔으나(종래의 신장율 년 3~5%로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형화 점포의 규제조치와 자치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다소 둔화되었으며 급격히 포장란이 판매증대한다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다.

6) 업체별 취급동향의 변화 :

현재 계란구입장소의 실패를 보면 다량 판매점이 60%, 공동구입이 15%로 되어있다.

이 중에서도 공동구입이 수년 전보다 5.6% 즉 3배 가까이 신장하고 있다.

또 4~5년 후에는 2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량판매점의 중량도 대형화되어 소점포에서는 따라올 수 없을 것이고 기타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도 상대적으로 침식당할 것을 예측하면 판매량의 저하는 불가피한 것이다.

질서의 생활화로 선진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자

표 7. 계란 포장형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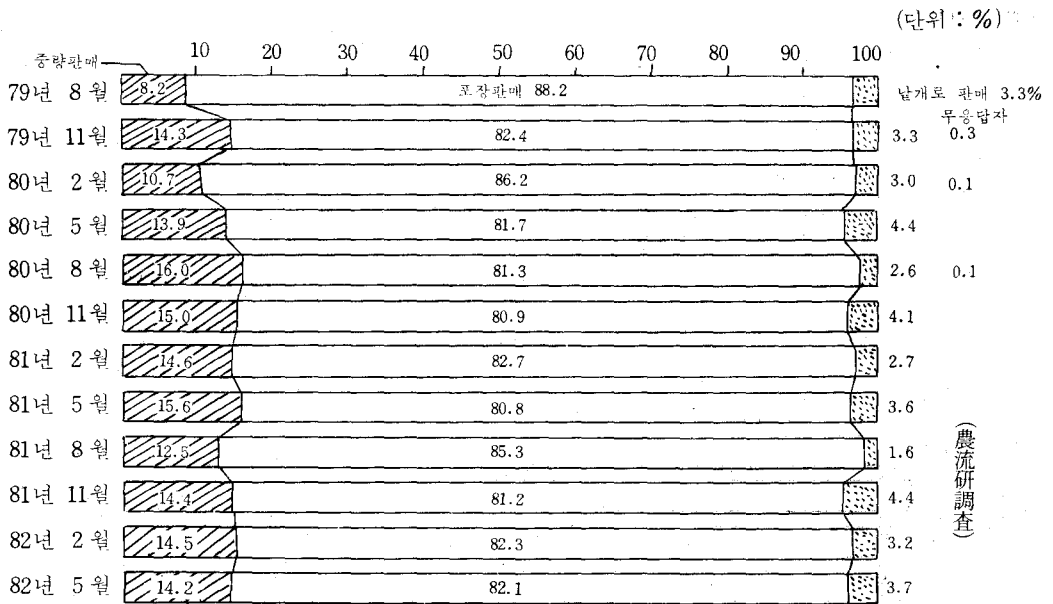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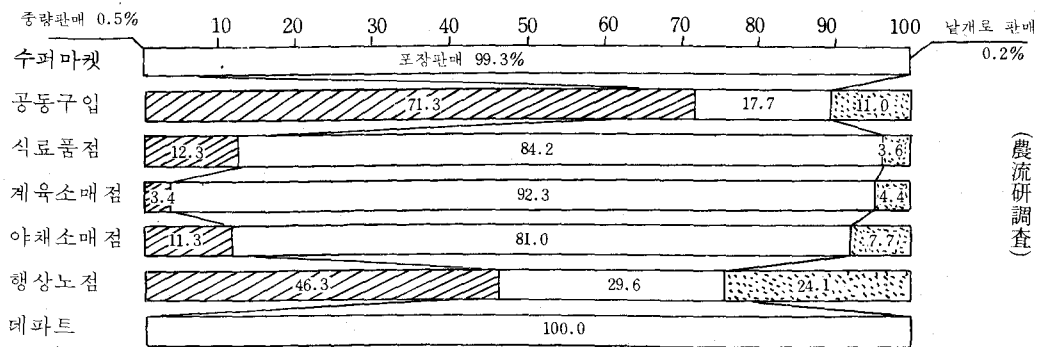


표 8. 계란 구입장소별 포장형태



주: 81.8, 81.11, 82.2, 82.5, 4개월간의 평균

표 9. 계란구입장소

(%)

년월	구입장소	수	공	식	계	야	과	행	데	기
		퍼	동	료	육	채	물	상	파	타
			구	품	소	소	소	노	트	
			입	점	매	매	점	점		
1년차	79년 8월	64.4	5.6	10.6	6.8	6.2	0.1	2.7	0.2	3.4
	79년 11월	60.7	8.5	7.6	7.7	7.4	0.2	4.5	0.6	2.8
	80년 2월	58.3	9.3	12.1	5.6	7.4	-	2.3	1.0	4.0

2 년 차	80년 5월	62.1	10.2	10.2	5.2	5.2	-	3.0	0.1	4.0
	평균	61.4	8.4	10.1	6.3	6.6	0.1	3.1	0.5	3.5
	80년 8월	63.1	11.7	7.7	4.7	7.2	0.1	4.2	0.2	1.1
	80년 11월	63.0	11.6	9.5	8.4	-	-	5.0	0.4	2.1
	81년 2월	60.9	12.9	10.7	4.5	5.2	-	4.5	0.7	0.6
3 년 차	81년 5월	61.1	14.7	8.2	5.3	5.6	-	3.6	0.1	1.4
	평균	62.0	12.7	9.0	5.7	4.5	-	4.3	0.4	1.4
	81년 8월	65.3	10.1	7.8	2.9	6.6	-	2.8	1.3	3.2
	81년 11월	58.7	12.2	8.8	5.8	7.0	-	3.7	1.8	2.0
	82년 2월	58.9	14.2	8.8	5.6	6.4	-	2.7	1.4	2.0
3 년 차	82년 5월	59.0	15.0	8.8	5.2	5.6	-	3.1	0.5	2.8
	평균	60.5	12.9	8.6	4.9	6.4	-	3.1	1.3	2.3

(農流研調査)

표 10. 계란의 지역별 생산동향

(Poultry international 82년 10월호에서)

북, 중앙아메리카(천톤)						
	1969-71 평균	1980	% 증가율			
미국	4045	4127	+ 2	콜롬비아	95	196 +106
멕시코	334	604	+81	베네주엘라	76	120 +58
캐나다	328	332	+ 1	칠레	58	63 + 9
쿠바	64	94	+47	페루	28	60 +114
엘살바도르	23	52	+126	에콰도르	13	57 +339
구아테말라	29	40	+38	파라과이	13	25 +92
니카라과아	13	30	+131	우루과이	17	18 + 6
푸에토리코	14	26	+86	볼리비아	11	17 +55
도미니카	17	25	+47	총 계	830	1524 +84
코스타리카	13	17	+31	동유럽(천톤)		
자마이카	12	16	+33		1969-71 평균	% 증가율
파나마	8	16	+100	소련	2,250	3,724 + 66
총 계	4900	5379	+10	폴란드	387	495 + 28
남아메리카(천톤)				동독	258	325 + 26
	1969-71 평균	1980	% 증가율	루마니아	165	322 + 95
브라질	337	700	+108	체코	186	245 + 32
아르헨티나	182	268	+47	헝가리	176	244 + 39
				유고슬라비아	137	220 + 61
				불가리아	89	135 + 52
				총 계	3,648	5,710 +57

서유럽 (천톤)

	1969-71 평균	1980	% 증가율
프랑스	644	838	+30
서독	884	821	-7
영국	878	771	-12
이탈리아	549	639	+16
스페인	460	634	+38
네덜란드	268	540	+102
벨기에	233	192	-18
그리스	100	137	+37
스웨덴	102	113	+11
오스트리아	86	95	+11
핀란드	64	79	+23
덴마크	84	76	-10
포르투갈	37	62	+68
스위스	39	43	+10
노르웨이	38	43	+13
아일랜드	40	28	-30
총 계	4506	5111	+13

중동 (천톤)

	1969-71 평균	1980	% 증가율
터어키	98	207	+111
이란	56	136	+143
이스라엘	74	91	+23
이집트	55	90	+64
시리아	16	75	+369
이디오피아	66	73	+11
수단	17	33	+94
레바논	27	30	+11
이라크	10	20	+100
사우디아라비아	7	20	+186
리비아	3	16	+433
총 계	429	791	+84

아프리카 (천톤)

	1969-71 평균	1980	% 증가율
나이제리아	102	178	+75
남아프리카	115	160	+39
모로코	44	78	+77
튀니지	14	34	+143
탄자니아	15	26	+73
케냐	12	20	+67
알제리	13	19	+46
잠비아	8	18	+125
총 계	323	523	+65

동남아 (오세아니아 포함) (천톤)

	1969-71 평균	1980	증가율%
중공	3309	4601	+39
일본	1735	2002	+15
인도	262	733	+180
한국	131	321	+145
호주	185	200	+8
필리핀	117	200	+71
베트남	84	122	+45
말레이시아	63	120	+90
태국	74	105	+42
북한	55	105	+91
파키스탄	15	96	+540
인도네시아	32	90	+181
뉴질랜드	52	58	+12
방글라데시	34	47	+38
버마	17	26	+53
싱가포르	17	26	+53
스리랑카	20	20	-
라오스	15	20	+33
아프가니스탄	15	17	+13
총 계	6232	8909	+43

정부미를 많이먹읍시다.